

정부합동 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처	산업통상자원부	김재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(02-734-1864) 유형선 국내대책과장(044-203-4140)
	기획재정부	정병식 통상정책과 과장(044-215-7670) 조용범 농림해양예산과장(044-215-7350)
	외교부	김석우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(02-2100-7675)
	농림축산식품부	정현출 농업정책과장(044-201-1711)
	해양수산부	전재우 수산정책과장(044-200-5420)
	환경부	유 호 해외협력담당관(044-201-6560)

한-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

- 한-중 FTA 연내 발효 가능 전망 -

1. 한-중 FTA 국회 본회의 통과

-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
 - 한-중 FTA는 지난 '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 1일 서명
- 정부는 한-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,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임

2. 한-중 FTA 연내 발효시 기대 효과

-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, '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-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(전체 수출의 25%)인바, 한-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

*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: ('13) 9.2%(1위) → ('14) 9.7%(1위) → ('15.上) 10.7%(1위)
 ** 금년 상반기 중국 수입감소(중국 해관 기준 △19.1%)에도 불구하고, 우리는 타국 대비 낮은 감소율 기록(△7.2%) (미국 △6.8%, 일본 △10.8%, 독일 △13.3%, 호주 △32.6%)

-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·환경·엔터테인먼트·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,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됨

*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(7.0%)에는 3차 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
 - 산업별 중국 경제성장률('15.2분기): 1차 3.5%, 2차 6.1%, **3차 8.4%**

** 한중 서비스교역액(백만불): ('12) 23,380 → ('13) 31,502 → ('14) 36,157

- 중국 농수산물 시장 93% (품목수 기준) 개방을 확보한 한-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

- '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·신선·안전 농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

MINISTRY OF AGRICULTURE, FISHERIES AND RURAL AFFAIRS
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

* '15년 1~8월 기준 對中 농수산물 수입 감소(전년동기대비 △8.4%)에도 불구하고, 우리의 對中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.9% 증가(632백만불)

- 한-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, 한-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- ① 한-중 FTA 효과(관세인하·신속통관 등)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의 진출 전초기지형 투자 및 ② 화장품·식품·패션·문화콘텐츠 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 '메이드 인 코리아(Made in Korea)' 프리미엄 획득 후 中내수시장 재진출형 對韓 투자 등의 확대 예상

3. 한-중 FTA 추가 보완대책 이행

- 정부는 여·야·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김재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(☎02-734-1864), 유형선 국내대책과장(☎044-203-4140), 기획재정부 정병식 통상정책과 과장(☎044-215-7670), 조윤범 농림해양예산과장(☎044-215-7350), 외교부 김석우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(☎02-2100-7675),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과장(☎044-201-1711), 해양수산부 전재우 수산정책과장(☎044-200-5420), 환경부 유호 해외협력담당관(☎044-201-656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MINI
TRADE